

내 모습 아닌 참나 있음을 밝히세요

23면에서 계속

실 분만 태어나서 좀 좋은 생각, 좋은 모습, 좋은 환경 그런데서 좀 사사리 이런 뜻이죠.

질문2: 공부경남 지원 신도 양우성입니다.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릴 배풀어 주신 큰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한 마을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스님을 만나면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아집이나, 욕심, 집착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혼돈스럽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초심자가 공부하는 중에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환경이나 장소를 피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중고 싶고 떠난 중도

스님: 자기 자신이 없다면 모두가 없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좋게 해주면 다 좋은 겁니다. 다 언짢은게 아닙니다. 언짢은 마음이 들더라도 공식으로서 그냥 넘으세요. 또 공용으로 그냥 넘으세요. 둘 아니게, 그리고 고선 속으로 그냥 관하고 상대가 좋게 생각할 수 있게끔 좋게 말해주고 끝내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피할 일이 없죠. 그러려면 언제 어느 천년에 이 세상에 지구에 뿐만 아니라 우주에 모든 물체도 산에 묵신도 땅에 자신도 물에 용신도 그 모두를 어떻게 돌 아리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모두 인연을 지으세요. 좋은 인연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편하게 사시게 되실 겁니다. 무겁지 않게, 항상 무겁지 않게 사세요.

질문2: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미 스님께서 설법을 하셨습니까. 나는 질문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스님 법문을 들으려 선원에 다닌지 10년정도 돼 갑니다. 큰스님께서 법문 중이시거나 담선 중에 신도들이 좋다고 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또는 정신을 쫓아내고 지적하시는 경우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 없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합니까.

스님: 저 불은 스스로 내 불을 쫓아 오려라 이리하지 않습니다. 감각하면 불을 찾아서 옵니다. 환한대로 태양도 그렇습니다. 날개 있으면 벌레에 태우고 달릴 게 있으면 벌레에 갇다 말리고 이리, 태양이 그것 말려라 저거 썩는 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받아들여서 이것은 좋다 하고선 자기 자신을 기르는 애인데, 자기 자신을 기르려면 그냥 뭐 옳고 안옳고 간에 그렇게 하고 가야죠. 그래서 부처님께

서는 도(道)는 탄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 도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싫어도 싫다 말하지 말고 좋아도 좋아고 말하지 말고 그대로 중심을 잡고 그대로 나쁘게 하지 마라. 자꾸 이유를 달아서 나쁘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생명을 생각하고, 나와 같이 모습을 생각하고, 나와 같이 아픔을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냐 이런 소리죠. 그렇게 살게 되면 저절로 보살의 응신이 되면서 한 부처니라. 한 도량에 한 부처니라.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너가 너를 발견하지 못하고 너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너와 다른 것이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질문3: 스님, 저는 중부경남 지원에 운현승입니다. 저는 가끔은 저절로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봐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지켜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지켜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자유스럽게 하세요. 우리 사는 게 의도적으로 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면의 참 나하고 나 아닌 내 모습을 알고 말을 할려면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요. 자연적으로 말을 하고 또 그게 끊어지면 끊어지게 아니라 그냥 잠시 이렇게 갔다가 그냥 다른 거를 죽 말하자면 얼어지도록 한 놈도 그 놈이고 일어나게 한 놈도 그 놈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놈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너 가 얼어지게 했잖아. 그런데 또 지금 일어나게 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니까 그 내면에서 하는 말이 '네가 밝으면 밝은대로 찾아가고 어두우면 어두운대로 가지 말아라. 내가 어두운 데를 밝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얼어 지도록 되는 것 아니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람 사람이 거북하게 생각을 하고 거북하게 살지 마세요.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스님 스님, 집을 비워놓고 모처럼 고향에 가서 한 휴일이 있다 올 건데 집 불 사람이 없습니다. 뭐 가져 갈 것은 없어도 그래도 집을 봐야만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아, 집보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면 되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세요" 그러구선 가요. 가더니 한 열을 있다가 오더니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아 저이 집 지키는 어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갔더니 집에 오니까 아무 일도 없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



그림 · 최주현

모든 일 관할 줄 알고 정성 다 한다면 보이지 않는데서 길이 열리게 돼 있어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 감사하다 그리고 도로 집어 넣었어"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됩디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살아가는 것이 전부 도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자는데 말입니다. 아마 도둑이 들어왔던 모양이죠. "야, 어서 깨라. 문을 열어 놓고 자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처음엔 그걸 모르고 도로 드러누웠다가 열핏 대문을 안 잠고요 그냥 잔 것 같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니까 정말 대문이 활짝 열리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고 이만한 목판 같이 생긴 것이 있었는데 그 함을 들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 함에 뭐 들었느냐?" 그러니까 "뭐 들은 거는 별로 없고 전자에 시야버저가 쓰인된 도구" 그 함에 들어 있는데 그걸 지고 갔어요. "그럼 그걸 저다 뭐 할려고 지고 갔지?"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고는 가면서 "아무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문 잠고고 자라고 이렇게 깨워주니 우리 주인공이 제일이야"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주인공이 있어서 자기를 이끌고 다닌다는 걸 아셔야 해요. 자기 아닌 진짜 자기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고집이 세고 믿지 못하고 가니까, 믿지 않고 가면은 믿지 않고 가는데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 모습 아닌 자기가 꼭 있음을 밝히세요. 항상 밝히고 있지만 말입니다.

질문3: 그리고 스님,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돌고 남을 믿고 있지만 생활하다 보면 종종 속습니다.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다 한자린 줄은 믿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나를 완전히 버리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는 것이 한시도 눈을 감고 살지 않습니다. 송장처럼 눈을 감았어도 안에서는 발뚎 발뚎 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도 참선이요, 일어나서 있어도 참선이요, 일을 해도 참선이요, 앉아서도 참선입니다. 이 소립니다. 그러

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 이게 네가지가 다 겹쳐서 돌아 가고 있다. 앉으나 서나 일하나 또 잠을 자나 모든 게 더불어 같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 몸뚱이 속에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질문3: 스님, 저는 제가 전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쪽 어질러 났던 일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들을 이생에서 다 치우고 다음 생에는 머리 깎은 큰스님 제자가 되어서 이 법을 널리 퍼고 싶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나는 머리를 안 깎아서 이 공부를 못하겠다 이리저리 다 치우고 다음 생에는 머리 깎은 큰스님 제자가 되어서 이 법을 널리 퍼고 싶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가족 속엔 비 안 들어와

우리가 나쁜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나쁜 사람 나쁜 생각을 하면은 벌써 자기부터가 좋지 못하니까요. 하여튼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하대하고 보거나 이런 안 되죠. 그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아픔과 같은 거니까요. 모두가 믿고 공도가 없어요. 참 당부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적에는 아주 고통스럽게 복장이 울라 울 때 때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줄 알기 때문에 그 복장이 울라 울도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금방 죽는다면 이리저리 죽을 줄 안다면 금방 죽을텐데 뭐 그렇게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죽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아답이예요.

우리가 사는 건 삶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탈린트 역할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악하고 화낼 게 하나도 없어요. 모질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걸림이 없이 이 공부를 꾸준히 길게 끊어지지 않고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내 몸뚱이를 하나 잡아먹고 나니까 한 가정을 또 잡아먹고, 모든 가정들을 다 잡아먹게 되더라. 다음엔 뭘 잡아먹어야 되느냐 하니까 또 뭘 잡아먹어야 되겠냐 되겠다. 이게 잡아먹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공한 줄을 알게끔 자꾸 발원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저절로 밝게 찾아 올 거다. 멀지 않다. 만약에 백년이 간다거나 십년이 간다면은 한 반절, 즉 50년 5년 밖에는 안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많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너무 물질계로만 밝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계도 같이 밝혀야만

우주와 지구 등 다른 축성도 형성이 되는 건데, 보고 듣고 이러한 것만 지금 아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발달되는 분들은 발달되고요. 이 공부를 해가면서 같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가고 있고 더불어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하는구나 하고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나 아닌 진짜 내가 없다면 이런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할 생각도 못하고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전자에 공부할 때 애견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밀짚 모자 하나 쓰고선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오고 갈 수가 없어서 풀밭에 그냥 앉았어요. 그 때 모자위로부터 비가 줄줄줄 쏟아지는데 거기 앉아서 웃었다니까요. 왜 웃은 줄 아십니까. '야, 참, 가족 속으로 비가 안들어가서 다행이구나. 허허허. 가족 속으로 비가 안들어가서 새지 않으니 참 다행이구나.' 이리하고 좋아서 웃었다니까요. 그 한 생각이 말입니다. 그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별거였어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가족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별난 호기심으로서 참 너무나 좋아서 비를 맞아가면서 걸걸대고 웃었다니까요.

내가 전자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말 없이도 자기 자신을 서로 만나고 할텐데 공부를 진짜로 못한 사람은 자기 주인공하고 자기하고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 주인공하고만 만날 수만 있다면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만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 스님에게도 다 동참해야 될 거예요. 아, 우리만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동참' 하면은 벌써 여대에 해야 할 수 없는 조사들과 더불어 같이죠.

나는 아주 참 극박한 것을 지난번에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하면 사람이 한 생각을 하기가 모르는 사람은 어렵다고 보는데 아는 사람은 한 생각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한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멋지구나. 그리고 그렇게 평탄하구나. 그리고 걸림이 없구나. 그런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이 한생각하는 도리를 아실려면 이게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일도 '주인공, 너만이 불화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놓는 겁니다. 이 뇌버림을 아주 주시해야 이 다음에 큰 뿌리로서 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일에 관할 줄 알고 정성스럽게 한다면 보이지 않는데서 다 길이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만 잘 사시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남도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잘 하면 식구는 물론이고 남들도 다 잘 살게 됩니다.

※ 위 법문은 2000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함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항항생제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보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몸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계 등 각종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인상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품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저는 20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가 되면 끝이 없도록 아프고 거기도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도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배변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배꼽)를 착용하는 것이므로 좋아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서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서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 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때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매당되는 증상(○)이십이.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증이 없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편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15. 생리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차집, 영안실)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향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향
● 관복의식, 관복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할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 목욕하면 상문살이 잘빠
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